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에 자리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았다. 이곳이 여느 도서관보다 특별한 이유는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책 사랑하는 엄마들이 만들고 그 마음을 이어 공동 운영으로 현재까지 건재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에 자리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았다. 이곳이 여느 도서관보다 특별한 이유는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책 사랑하는 엄마들이 만들고 그 마음을 이어 공동 운영으로 현재까지 건재하다는 점이다.

2002년 9월, 금천 동화읽는 어른모임 함박웃음 1, 2, 3기가 주축이 돼 회원 30여 명의 소중한 기부금을 토대로 만들어진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하루에 두 명씩 한 조를 이뤄 어린이 이용객들을 맞이하는 지킴이가 50여 명에 이른다.

“좋은 책을 아이들에게 읽히도록 해야겠다는 바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근자 없이 자원 봉사자 어머니들이 도서관을 지키고 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도 공공의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대 관장을 맡고 있는 이근옥 씨의 말이다.

도서관 위기 극복 후 자신감 생겨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은 시작이 남달랐던 만큼 여러 고비도 있었다. 지역에 책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함박웃음 회원들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출자금 3천 500여만 원을 어렵사리 마련했다. 좋은 책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서가에 신경을 쓴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바닥재와 보일러, 작은 다락방까지 내부 인테리어에 온 정성을 쏟았다. 힘들게 마련한 터였기에 오래도록 머물러 아름다운 책 공간을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의 처지는 서글펐다. 개관 1년 만에 도서관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 정든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만든 후라 낙심도 컸어요. 무엇보다 '도서관 운영을

쉽게 생각했구나' 라는 자신감 상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 없어 각계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면서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뜻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느낀거죠. 넉넉지 않은 회원들에게 다시 기금을 내라고 말할 수 없어서 바자회를 열고 가방도 만들어 팔면서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3대 관장으로 봉사하고 현재 사무장직을 맡고 있는 어유선 씨는 당시의 어려움이 현재를 있게 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엄마들이 만든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전국 동화읽는 어른모임 회원들의 애정 어린 성금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운영자들에게는 심적으로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됐다. 현재의 자리에 평수를 넓혀 재개관을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지역 어린이들이었다.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책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몇 개의 행사 이외는 여타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매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책 읽어주는 시간’과 엄마들에게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월례 강연회,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빗그림 공연이 은행나무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하고 알찬 프로그램의 전부다. 모두 별도의 참가비 없이 진행하고 있다. 철마다 진행되는 어린이 행사가 있긴 하지만 수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습니다”(어유선 사무장).

운영 회원들이 마을에 새긴 원칙은 “도서관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가사일에 바쁜 주부들이 시간을 내고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도 주말을 이용해 지킴이를 하는 것도 건강한 도서관을 만들고픈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두명의 생각으로 시작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나 운영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요.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지 학원이 아니거든요. 운영비는 모두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는 회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현재 도서관 회원은 지역회원 5백여 명, 평생회원 40여 명이다. 후원금으로 여유가 생길 때면 가장 먼저 책 구입비를 떼어 놓는다. 도서관을 만든 이들이 모두 동화읽는 모임의 출신 때문인지 책 고르는 기준 만큼은 엄격하다.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도 서가의 책 배치문제다. 3천 5백 권이었던 서가의 책이 현재는 만권을 넘어 꽤곡히 꽂혀있다.

“우리 도서관의 생명력은 책 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좋은 책 구입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책을 가지고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해간다고 생각합니다”(이근옥 관장).

“누구도 주인이 아니니까 모두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운영자이면서 이용자라는게 우리 도서관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투명성, 공공성이 강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 읽혀야

방학에는 아이들이 몰려 평균 50여 명이 도서관을 찾는다. 여러 명의 지킴이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탄력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체크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 이 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서가에 청소년 도서가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눈높이를 맞추게 된 부분이다.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청소년 사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도 작용한 결과다. 청소년 지킴이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일요일을 이용해 청소년 대상 강좌도 열었다.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린이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오래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4대 관장이근옥 씨

책의 힘이 지역 발전 자양분 되도록 노력해요

“막내가 도서관이랑 나이가 똑같아요.”

올해 4대 관장을 맡은 이근옥 관장은 금천 동화읽는 어른모임 함박웃음 4기 출신이다. 함박웃음 선배이자 3대 관장을 지낸 어사무장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금은 함박웃음 모임과 도서관 운영이 분리됐지만 여전히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책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책은 혼자 읽을 때 보다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눌 때가 책을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의 책사랑 마음이 은행나무 도서관을 탄생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육아와 가사는 물론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도 주말 등 가능한 시간을 이용해 지킴이 자원봉사를 한다. 이들의 열심은 바로 은행나무 도서관의 원동력이다.

“낙후된 지역이어서 정말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공공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통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시간을 지내고 나니 사적인 마음을 배제하게 됐고 그래서 이사 온 후 모두 함께 운영한다는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어유선 사무장 · 이근옥 관장

이 관장의 막내딸처럼 갓난쟁

이 시절부터 도서관을 드나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도서관을 뛰어다닌다. 도서관과 함께 지란 다섯 살 짜리 꼬맹이가 “이거는 누구 작가의 책이네” 하면서 전문가 못지않은 말을 할 때면 이 관장을 비롯한 지킴이 엄마들은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한다.

“이곳을 처음에는 탁아방, 유아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 보는 시간 즈음에는 아이들 맡겨놓고 시장가는 엄마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3시 책 읽어주는 시간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도서관이 이제는 아이와 함께 책을 보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의 올해 목표는 운영 안정화다. 민간도서관 중 엄마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첫 사례로 꼽히는 만큼 ‘도서관다운 북적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배들처럼 함께 돕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은행나무만의 문화를 살려나갈 생각입니다.” **☞**